

# 임실역 KTX 정차 실현 탄력 농촌민박 전기재해 예방 협력

### 임실군-국가철도공단, 철도 현안 협력·지역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이 국가철도공단과 손잡고 임실역 활성화와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오랜 숙원사업인 임실역 KTX 정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28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을 방문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현안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실역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임실역 KTX 정차 관련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실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KTX 정차를 비롯한 철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적·실무적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실군 철도 관련 주요 현안 공동 대응 △임실역 활성화 및 철도 이용 여건 개선 △임실역 주변 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임실역 KTX 정차



심 민 임실군수는 28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KR)을 방문해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현안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지역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차원의 철도 교통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협약은 국가철도공단과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임실군 철도정책 추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역은 전라선 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임실지역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KTX 정차가 실현될 경우 임실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장수·진안 등 인근 시군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등 다양한 파

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군은 앞으로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실역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정비 및 개발, 지역 관광·산업 지인과의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 철도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인 임실역 KTX 정차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의 실무협의 체계를 강화해 철도 이용 활성화와 역 주변 연계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우수민박협의회, 협약 체결

남원시는 28일 오전 10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및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와 농촌민박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행 농촌민박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남원시 관내 농촌민박 사업주들이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후 지자체에 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번거로움이 앞으로 전면 해소된다.

남원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 간 행정 정보의 벽을 허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관내 농촌민박 대상 명단을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는 현장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와 직접 공유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측면에서도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박 현



남원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기관 간 행정 정보의 벽을 허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관내 농촌민박 대상 명단을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는 현장 점검 완료 후 그 결과를 시와 직접 공유하게 된다.

장 점검 시 일부 사업주들의 비협조나 부재 등으로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리 주체인 남원시가 명단을 정확히 정립하고 미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전기 안전점검의 수검률과 현장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독려하고 사후관리를 전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민박 전기 안전사용 교육과 긴급 재난 발생 시 기술지원 및 긴급복구를 담당하며, 민간 대표인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역시 회원 농가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 실태 조사

남원시가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자의 현황과 영농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초기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연 1.5%의 고정금리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울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가운데 사업 실적에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2억 원의 융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점검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432명과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350명 등 총 7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들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사항은 독립경영 유지 여부, 전업적 영농 종사 및 정착 여부

등이며, 관련 서류 검토와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일부 의무사항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상자별 사전 안내와 이행 독려를 통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융자지원 기간에 따른 의무 영농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기존 미충족으로 인한 환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민간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관내 민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실천 과제로 추진된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은 남원시 지리산소극장(시립도서관 4층)에서 회당 약 80명 규모로 진행, 특히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무와 현장 중심의 주제로 구성, 주요 내용은 △주인 참여형 실천 기법 △비영리 조직의 리더십과 소통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등이며, 외부 전문교육 기관의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 심도 있게 운영된다.

5월 28일 '지역을 바꾸는 사회적자본과 혁신리더십'을 주제로 첫 번째 교육이 열렸으며, 강사로 나선 강경모 시민교육콘텐츠 연구소 소장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일상 속 실천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청년자율방재단' 참여 단원 모집

순창군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참여 단원 모집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로 재난관리 활동 범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청년층의 참여를 통한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순창군 청년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까지 전 단계에서 활동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주민 대피 지원과 취약 시설 사전 통제, 산사태·홍수·급경사지 붕괴 우려지역 예방 및 선제적 대피 지원, 무더위·한파쉼터 관리, 난현상 응급복구 활동 등이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이며, 청년자율방재단은 총 8명 이상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2명과 관내 거주 청년(50세 이하)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도내 4개 시군, 대학·기업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27일, 관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이 밀집해 있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며, 이번 교육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남원시보건소 자체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과 손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내 감염관리 기본원칙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집단발생 대응·관리 △순위생 심화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특별점검

임실군은 오는 6월 3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자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 지지·반대행위,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공무, 선거 관련 행위,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를 중점 점검 중이다.

또한 음주·흡연·복합행위, 복무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강행이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공직사회 내부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